

“남북관계 타개 대북특사 파견해야”

국회는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16일 북한 미사일 문제와 한미동맹, 남북관계 등 외교 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했지만 원인과 해법을 놓고는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남북관계=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불러왔으며 '비핵 개방 3전' 폐기를 요구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은 이전 정부의 대북 유화책 때문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 초당적 인사의 대북특사 파견을 요구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한승수 총리가 직접 특사로 나설 것을 제안,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현재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이유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과거 정부가 퍼주기를 했다는 과거 부정 프레임에 스스로 갇

■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한반도 비핵화 선언 기능 상실 폐기 촉구

한미동맹·FTA 비준 문제 등 집중 추궁

혀 있다”며 현 정부책임론을 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북한은 소위 핵발전정책이 진행되는 기간 여러 차례 도발했다”며 “북한은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들이 원하면 그들이 편리한 시기에 도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핵 억지를 위해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정식참여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개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하지 않는 사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념계획을 사전계획

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핵 대처방안과 관련, “지난 1993년부터 기능을 상실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대북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가진 과일의 핵에 맞서 우리는 평화의 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 정립 방향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한미동맹 복원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의원들은 아프가니

스탄 파병 요청 등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무책임한 북핵 대응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된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며 “새로운 ‘한미 신안보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청 가능성에 대해 “동맹이란 이유로 명분 없는 전쟁에 나가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정부의 단호한 반대 의지 천명을 요구했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시점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조기비준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방점을 뒀으나 야당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준시기를 늦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이 밖에도 제2 롯데월드 신축문제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몽준 한나라 최고위원

전남대서 명예철학박사



전남대학교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전남대는 16일 6선의 정 최고위원이 평소 남북관계 개선과 사회복지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 및 스포츠 문화발전을 통한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학위 수여식에는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흥구 전 총리, 김도연 울산대 총장, 구본호 전 KDI 원장, 조흥규 전 국회의원, 남궁진 전 문화부장관,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 김로

마노 신부, 김문일 위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남대 총학생회는 전남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측이 정치적, 재정적 후 원자 마련을 이유로 정 최고위원에게 학위를 수여하려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7년 전남대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정 최고위원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려 했으나 철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의 반대로 연기됐었다.

/채희종기자 chae@

“50년 지기이지만...”

박상천 '법 개정' 제안에 박희태 한나라대표 반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16일 '50년 지기'인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다협 추구형 국회법 개정'을 제안한 데 대해 “공공 일어붙은 민주당의 동토 체질에서 봄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반갑지만 지금도 의사를 민주적으로 진행하는데 아무 차질이 없다”고 반대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한 원로 중진 의원이 국회 의사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마치 법과 제도가 미비해 민주당이 폭력을 써서 의사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걱정된다”면서 “지금 국회법만 해도 의사 민주주의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대표의 이날 발언은 동갑내기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여야 원내총무를 같이했던 '50년 지기'인 박 의원의 제안에 대한 반박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홍사덕 의원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 같은 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진표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같은 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김진표 최고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靑 홍보지침’에 일희일비

“청와대 홍보지침”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차원의 특별검사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등 여권에 대한 총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입법전진을 위한 구심력이 약해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에 ‘홍보지침 e-메일’을 보낸 사실이 밝혀지자 당 자체 조사 결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이 검찰조사 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역시 발화지점에 대한 절거민의 진술을 왜곡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만큼 추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민주 “용산 왜곡 드러났다” 특검 도입 공세

한나라 “약재 터졌다” 당 구심력 이완 고심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용산 참사를 덮기 위한 (청와대의) 여론조작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정말 뒤통수라면 특검을 수용해 명명백백하게 혐의 없음을 입증하면 될 일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법안 처리를 다짐해온 한나라당은 위기에 봉착했다. 민주당이 상임위법 ‘지연 전술’로 정쟁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청와대 홍보지침’ 등 약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표가 이른바 ‘속도전’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김영오 국회의장마저 최근 3월 국회 가능성을 얘기하며 2월 임시국회 정쟁 법안처리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여 당의 구심력이 크게 이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카드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으로 15개 핵심법안 중 일단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것. 우선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 제한 폐지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가 라운지

이석형 함평군수 중앙당서 복당 심사

김성 전 도의원 복당

원들이 경기에 이어 의원발의 조례 입법활동에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표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도의회와 전남지역 기초의회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 285건의 입법활동을 했다. 이는 경기 384건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위로, 경북(236건), 서울(226건) 보다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

○전남도선관위는 16일 전남도의회 장흥군 2선거구 4·29 보궐선거에 민주당 김기주(60·전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씨와 무소속 이문택(44·전 민주당 장흥군지역위 사무국장)씨가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의회 라선거구 재선거 예비후보자에는 민주당 김연일(46·다인산업 대표이사)씨가 등록했다.

○전남지역 광역·기초의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1박2일 제주여행 패키지

특급 호텔	특급 투어	1박2일 패키지
09,000원	05,000원	119,000원
1박2일 패키지	1박2일 패키지	179,000원
1박2일 패키지	1박2일 패키지	153,000원
1박2일 패키지	1박2일 패키지	43,000원

문의: ☎064-744-1109 www.jejuwonghwa.com

IONIA

‘상쾌한 물 수출의 힘’ 수상기념

무료체험단모집

●대상: 2009. 2. 17. ~ 2. 28. 까지

●신청: 064-744-1109

●대상: 2009. 2. 28. 까지

●신청: 064-744-1109

●대상: 2009. 2. 28. 까지

●신청: 064-744-1109

●대상: 2009. 2. 28. 까지

●신청: 064-744-1109

●대상: 2009. 2. 28. 까지

●신청: 064-744-1109